

우레탄 트랙 녹장 교체... 위협받는 학생 건강

전남 97개교 교체 공사 중
기존 업체와 마찰 등 지연
운동장 사용 제한 등 불편
새학기 학생에 피해 고스란히

전남도교육청이 유해 중금속 범벅인 우레탄 운동장·트랙 교체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새 학기를 맞은 전남도내 초·중·고교생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체공사 지연으로 교내 운동장 사용도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마저 줄어드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운동장·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교체 대상이 된 학교수는 모두 174개교다.

이 중 77개교(44.25%)는 지난해 우레탄 트랙 대신 마사토로 교체공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97개교(55.75%)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다시 바꾸기로 하고 교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오는 31일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교체 대상 학교에 대한 우레탄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설치 업체와 하자보수 공사 여부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교체 공사마저 연기됐다.

실제 전체 교체대상 학교 중 20개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업체와 하자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체공사도 2개월여 연기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은 해당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땐 우선 다른 업체를 선정해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30일 무안군 무안을 한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골대 뒤편 트랙에서 건너온 우레탄 폐기물이 검은 천막에 뒤덮여 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이 같은 기본적인 행정 행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지연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환경부가 지난 4월 우레탄 유해성 관리가이드 라인을 뒤늦게 만들어 발표한 점도 우레탄 교체공사를 지연시킨 이유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의 우레탄 교체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우레탄 교체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

는 운동장 주변에 접근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고, 지하에 유해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장막까지 덮어놨다.

이 때문에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체육수업 등 교과활동을 물론 쉬는 시간에도 뛰어놀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 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우레탄 폐기물을 쌓아놓은 공간 주변에서 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욱 커지고 있다.

우레탄은 시간이 지나면 '열화현상'에 따라 가루로 변해 호흡기 등으로 인체에 들어가는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해당 교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광주·전남 마약사범 매년 증가 추세

전국 5년간 3만7533명 적발... 10~20대 급증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마약사범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부 김석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사범수는 2012년 5105명에서 지난해 885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115명이 검거됐다.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모두 3만7533명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만17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9709명), 50대(6018명), 20대(5236명) 순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94명, 지난해 8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만 50명이 적발됐다. 20대 마약사범도 2012년 600명에서 지난해 1327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825명이 검거됐다.

지난 5년간 지역별 마약사범은 경기도가 8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379

명), 부산(7378명), 인천(3332명), 경남(2649명)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41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제주도(195건)에 이어 가장 적었다. 전남은 829건으로 11번째였다. 다만, 광주는 지난 2012년 19건에 불과하던 마약사범이 2013년 53건, 2014년 54건, 2015년 85건, 2016년 141건, 올해 6월 현재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남도 지난 2012년 102건에서 지난해 211건, 올 6월 현재 145건으로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무직이 1만389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회사원(2497명)·농수산업(2107명)·노동자(1491명)도 1000명 이상이었다. 의료인과 학생, 주부도 각각 538명, 582명, 608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마약밀매와 투약이 채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생활고에... 고기 먹고 싶어... '안타까운 생계형 절도'

70대 노부부와 다리가 불편한 50대 장애인 여성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30일 방앗간 앞에 놓여 있는 떡 반죽기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77)씨 등 70대 노부부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장씨는 아내 박모(여·75)씨와 함께 지난 17일 새벽 광주시 북구 소재 염모(69)씨의 방앗간 앞에서 280만원 상당 반죽기계(무게 60kg)를 훔쳐 200여m 떨어진 자택 인근 뒷밭으로 가져간 혐의다.

생활고를 겪어온 장씨 부부는 이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중 염씨의 반죽기계를 발견하고 고물상 등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50대 장애인 여성이 마트에서 고기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

(여·58)씨는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마트에서 복숭아 3개, 문어 1마리, 바닷장어 2마리, 한우양지 200g 1팩 등 15만원 상당의 7가지 먹거리가 가방에 몰래 담겼다.

3살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4급 지체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이씨는 8년째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으며, 대학생 아들과 딸 함께 수만지구 인근 한 연구원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씨 가족의 생활비는 매월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이 전부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TV에 커먼 맛집이 나오고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며 소고기와 장어 등을 먹는 모습이 마르러왔는데, 마트에서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 보여 순간 나쁜 마음을 먹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유흥주점서 술 마시고 "배짜라"...상습 무전취식 50대 경찰서행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경찰서행.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김모(여·5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 2병을 시켜 먹고 술값 51만원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 8곳

에서 550만원 상당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것.

○...이미 85차례의 무전취식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한 이씨는 또다시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는데,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필리핀 땅 분양 속여 투자금 50억원 챙겨

광주동부경찰, 60대 구속

외국인들은 소유가 불가능한 필리핀 토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전국에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필리핀 땅을 판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필리핀에 있는 토지 분양을 미끼로 모두 99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갱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이씨는 경

제 전문가까지 초청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필리핀 땅을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은 현지법상 외국인의 경우 토지를 임대만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이씨는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광주로 주소를 옮겼으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동부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는 현재 돈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한 후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조사 중 수갑찬 채 도주한 중국인 검거

"불법체류 발각될까 두려워"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이 경찰서에서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주 등)로 중국인 A(34)씨를 다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5분께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플라스틱 의자를 부수고 도망쳤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

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다음날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탑승한 택시가 나주로 향했다는 점과 나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내용을 파악, 건설현장 동료의 집에서 검거했다.

2012년 입국해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강제 출국 조치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바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